

에티오피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5
V. 종합의견	17

I. 일반개황

면적	1,104천 km ²	G D P	698.4억 달러 (2016)
인구	91.2백만 명 (2016)	1 인 당 GDP	766달러 (2016)
정치체제	연방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Birr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추구	환율(달러당)	21.88 (2016)

- 아프리카 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지부티와 소말리아(동), 수단(서), 케냐(남), 에리트리아(북)와 국경을 접하고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이집트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2016년 약 9,120만 명)임.
- 1974년 이후 사회주의 군부 정권 하에서 다수의 국경 분쟁과 내전을 겪으며 가뭄 및 사회주의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하였음. 2016년 기준 1인당 GDP는 766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외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 저개발국임.
- 내각이 정치 실권과 국군통수권을 갖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991년 멩기스투 공산 정권을 무너뜨린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20년 이상 장기 집권하고 있음.
- 80여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둘러싼 부족간 갈등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2016년 10월 반정부 시위에 대한 경찰의 유혈진압으로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2016년 경제성장률은 농작물 생산 감소와 사회 혼란으로 전년대비 급락

- 에티오피아 경제는 전력, 도로, 통신 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투자 증대 및 외국으로부터의 원조 제공을 기반으로 최근 수년 간 평균 10%대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음.
- 그러나 2016년 경제성장률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급감, 10월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따른 사회 혼란 등의 여파로 인해 전년 대비 하락한 8.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전 대비 부진한 7%대 중반의 경제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주도의 개발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지속

-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정부 주도의 개발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수지는 최근 수년 간 GDP 대비 평균 -2%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농업 부문으로부터의 세입이 극히 적어 세수기반이 부족한 실정으로, GDP 대비 조세수입(收入) 비중은 2015/16회계연도의 경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20% 내외)보다 낮은 13.5%로 추정됨.
-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으로 전년(-2.0%)보다 상승한 -2.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동비율이 -3%대 초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에티오피아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를 통해 재정수지 적자를 중기적으로 GDP의 3% 이내로 억제코자 하고 있으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정지출 지속으로 인해 향후 동 목표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과거보다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농작물 생산량 동향에 좌우되고 있음
- 과거 30%를 넘나들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의 긴축 통화정책 및 저유가 기조에 힘입어 최근 수년 간 평균 10% 미만으로 많이 낮아졌으나, 기상조건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증감 여부는 여전히 물가상승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 고수를 통한 물가관리에 힘입어 전년(10.1%) 대비 하락한 7.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에도 긴축 통화정책의 지속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하락한 6%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상반기 중 가뭄 지속과 식료품, 연료, 원자재 등의 국제가격 상승세 전망이 변수로 존재함.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o	2017 ^f
경제성장률	9.9	10.3	10.4	8.0	7.5
재정수지 / GDP	-1.9	-2.6	-2.0	-2.4	-3.1
소비자물가상승률	8.1	7.4	10.1	7.3	6.3

자료: IMF, EIU.

2. 경제구조·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에 과도하게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 및 열악한 농업생산성
- 농업 부문이 GDP의 37% 이상(2016년 기준)을 차지하며,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등 경제구조가 농업에 편중되어 기상조건, 농산물 국제가격 등 외부적 요인의 변동에 매우 취약함.
- 산업별 GDP 구성(2016년) : 농업 37.4%, 서비스업 45.2%, 제조업 17.5%

-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면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부 고산지대에서만 농산물 재배가 가능하며, 관개시설 부족으로 고질적인 가뭄에 시달리는 등 농업 작황의 기후의존도와 변동성이 높음.
 - 총 경작가능면적이 약 8,500만 헥타르로 국토의 68%에 달하고 있음에도 농지 개발 부진으로 약 1,600만 헥타르만이 농경지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초지 또는 황무지로 방치되어 토지의 이용효율이 매우 낮음.
- 대다수의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의 소규모 농법에 주로 의존하여, 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교육 인프라 미비에 따른 숙련 노동력 부족이 제조업 발전을 저해

- 교육 인프라 미비에 따른 숙련 노동력의 부족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풍부한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제조업의 발달이 부진한 실정임.
 - UN개발계획(UNDP)의 Human Development Data에 의하면 2015년 에티오피아의 15세 이상 인구 문자해독률은 49.1%, 25세 이상 성인 인구의 중등교육 이수 비율은 15.8%에 불과함.

나. 성장잠재력

□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의 개발 가능성 높음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유럽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배를 받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국가로, 자원수탈이 적어 금, 탄탈, 석재 등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비교적 풍부함.
- 또한, 동부 Somali 주의 Ogaden 지역을 중심으로 가스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 CIA World Factbook 2017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의 천연가스 추정매장량은 25억 m³로 집계되었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5년 9월 중국 Poly Technology Company와 공동으로 천연가스 탐사에 착수하였으며, 2018년부터 천연가스 생산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내 신규 석유자원 발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로, Somali 주의 Ogaden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외국 기업들이 원유 탐사 및 개발을 진행 중임.

□ 풍부한 수력발전 잠재력 보유, 향후 인근 국가들에의 전력수출 기대

- 에티오피아는 2015년 기준 전력 생산에서 수력발전 비중이 98%로 사실상 수력발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수력발전 잠재력은 45,000MW로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아프리카 2위임. 그러나 현재 연간 발전용량은 4,238MW 수준에 불과하여 개발의 여지가 많음.
- 현재 청나일(Blue Nile River) 유역에 총공사비 45억 달러, 최대 발전용량 6,000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겸한 Grand Renaissance 댐 건설 프로젝트가 금년 7월 중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임.
 - 동 프로젝트의 발전소 가동이 개시되면 내수용 전력공급은 물론 주변 국가들에의 전력수출도 증가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 에티오피아 정부는 Gibe III 댐 수력발전소(최대 발전용량 1,800MW)를 포함한 수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및 발전설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연간 발전용량을 2020년까지 12,000MW 수준으로 증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 다만, 수력발전의 과도한 의존은 가뭄 발생시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를 초래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발전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

다. 정책성과

□ 국가발전종합계획인 GTP를 통해 중소득국 진입 추진

- 2002년부터 국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국가발전을 추진해온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0년 발표한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GTP: 2011~15년)에 따라 정부 주도의 각종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였음.
 - GTP의 목표는 5년간 연평균 11%의 경제성장률 달성으로, 동 기간 중 실제로 연평균 9.9%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목표치에는 다소 미달하였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음.

- 2015년 GTP II(2016~20년)를 시행하여, 인프라 투자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를 통해 1단계 GTP의 목표였던 5년간 연평균 1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한편, 경제의 농업의존도를 줄이고 경공업 부문을 육성하여 2025년까지 중소득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 GTP II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인프라 구축으로, 특히 도로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에티오피아 정부는 도로망 부족에 따른 물류이동 문제를 경제발전에 중대한 장애물로 인식하여, 464억 비르의 예산을 도로 건설에 투입할 계획임. 아울러 철도 건설과 非도시 지역 전력 공급에도 주력하고 있음.
- 다만, GTP II는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지출 증대를 감안하여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2016년 GDP의 37% 이상)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에티오피아의 농업은 자급자족을 위한 소농(小農, subsistence farming)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소농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농업 부문의 생산 증가는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함.
 - 에티오피아의 2015/16회계연도 조세수입은 GDP의 13.5%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평균(약 20%)보다도 낮은 수준임.

□ 산업단지 확충을 통한 경공업 육성정책 지속 추진

- 에티오피아 정부는 GTP II를 통해 2025년까지 산업단지 개발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섬유·의류 생산 등의 경공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증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2014년 공기업인 산업단지개발회사(IPDC)가 설립되어, 산업단지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2017년 4월 현재 Addis Industrial Village, Bole Lemi(1단계), Hawassa 산업단지에 우리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입주하여 주로 섬유, 의류를 생산하고 있음.
 - 2016년 7월 공식 개장한 Hawassa 산업단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임. 아울러 Kombolacha와 Mekelle 산업단지가 금년 2월 완공되어 조만간 본격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 Adama, Bole Lemi(2단계), Kilinto, Dire Dawa, Bahir Dar, Jimma 등의 산업단지가 금년 중 완공될 계획임.
 - 또한, 2018년 초 개장을 목표로 아디스아바바에 조성 중인 2개 단지는 각각 의류 및 의약품·의료기기 생산에 특화될 계획임.
- 에티오피아 정부는 GTP II 추진기간 중 8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국가경제에서 민간 부문의 비중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개발 잠재력의 수준, 대규모 인구에 따른 잠재적 소비시장 및 산업단지 조성의 속도로 미루어 투자유치 목표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경제의 핵심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각종 투자에서 공공 투자의 높은 비중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정부의 여전히 강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민간 부문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아직 성과가 부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조사 대상 190개국 중 159위로 하위 20%에 포함되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아직 성과가 부진한 상태임.
- 계약이행(Enforcing contracts, 80위)과 납세(Paying taxes, 90위)를 제외한 8개 부문에서의 순위가 모두 120위 이하에 그쳤으며, 특히 창업(Start a business, 179위) 부문의 순위가 가장 낮게 나타나 민간 부문을 육성코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대외거래

□ 자본재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만성적 적자 지속

- 에티오피아는 커피 등 1차상품을 주로 수출하고, 소비재와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자본재의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가 GDP 대비 10%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6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저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 수입가격 하락으로 전년(-11.6%) 대비 개선된 -9.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7년에는 외국 원조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를 자본재 수입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가 상쇄하여 -10%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외환보유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

○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공여국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Birr 화 가치 하락세와 경상수지 적자 기조 지속 등으로 2015년 36.3억 달러에서 2016년 30.3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에티오피아의 월평균 수입액의 2.0개월분에 불과한 수준임.

□ 총외채잔액 증가 추세 지속, 단기외채상환능력 악화 우려

○ 인프라 개발 투자, 쌍둥이 적자 보충 등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인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5년 31.3%에서 2016년 34.6%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특히 쌍둥이 적자 지속은 대외차입 증가를 가속화하여 향후 외채의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D.S.R도 2015년 16.1%에서 2016년 22.2%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어 세계은행 권고기준인 18%를 초과하는 등 단기외채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o	2017 ^f
경 상 수 지	-3,180	-6,428	-7,293	-6,351	-6,869
경 상 수 지 / G D P	-6.9	-11.9	-11.6	-9.1	-10.7
상 품 수 지	-9,320	-12,543	-12,709	-11,519	-11,978
수 출	3,082	3,325	3,080	3,052	3,313
수 입	12,402	15,868	15,789	14,571	15,291
외 환 보 유 액	2,070	2,618	3,625	3,031	3,228
총 외 채 잔 액	11,510	14,571	19,724	24,129	27,166
총 외 채 잔액 / G D P	25.0	26.9	31.3	34.6	42.4
D . S . R	7.9	10.7	16.1	22.2	25.0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 안정

□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2020년 총선까지 안정적 집권 전망

- 군부를 중심으로 3개 단체가 연합하여 1988년 5월 결성된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은 1991년 멩기스투(Mengistu)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뒤, 2015년 5월 총선에서 547석 중 546석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등 현재까지 25년 이상 권력을 독점하고 있음.
- 현재 EPRDF는 TPLF(티그레이인민해방전선), ANDM(암하라민족민주운동), OPDO(오로모인민민주기구), SEPDM(남부에티오피아인민민주운동)의 4개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치적 배경이 되는 부족(티그레이족)의 인구가 소수임에도 EPRDF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TPLF에 대한 EPRDF 내부의 갈등 가능성이 있으나, 야권세력의 성장이 극도로 제약됨에 따라 차기 총선(2020년 예정)까지는 EPRDF의 안정적인 집권이 전망됨.
- EPRDF가 테러리즘 방지령을 근거로 언론을 장악하고 야당 및 비정부기구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기소하는 등 반대세력을 철저히 억압함에 따라 정부 여당에 대한 유의미한 견제세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임.

2. 사회 안정

□ 세계 최빈국으로 열악한 생활환경 지속

- UN개발계획(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에 발표된 인간개발지수(HDI)에서 에티오피아는 총 188개국 중 174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음.
- 국민 10,000명당 의사 수는 0.3명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미비해 평균수명은 64.6세(우리나라는 82.1세)에 불과하며, 5세 이하 어린이의 사망률은 1,000명 당 59.2명(우리나라는 3.4명)에 달하고 있음.

-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인구의 67.0%가 심각한 빈곤(severe poverty) 상태에 놓여 있으며, 33.5%는 극빈선(PPP, 1일 1.9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등 세계 최빈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둘러싼 부족간 갈등은 사회불안의 근원

- 에티오피아는 오로모족, 암하라족 등 80여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둘러싼 부족간 갈등이 뿌리 깊은 사회불안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 정부가 가장 최근에 실시한 인구조사(2007년)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 오로모족(34.5%)과 암하라족(26.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은 인구비중이 세 번째로 크지만 이들에 비하면 훨씬 소수인 티그레이족(6.1%)에 집중되어 있음.
- 멩기스투 공산 정권 시절 오로모해방전선(OLF, 1973년), 오가덴민족해방전선(ONLF, 1984년) 등 독재에 저항하는 반군 조직들이 결성되었으며, 이들 일부는 EPRDF에 반발하여 대 정부 무력투쟁을 전개하였음.
- 반군 조직들은 에티오피아의 발전이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집중되고, 대부분의 부족들이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OLF의 주도로 부족에 근거한 지방 분권주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음. 현재 에티오피아 정부는 OLF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6년 11월 1일 단행된 내각 개편에서 9명의 오로모족 출신 인사들을 신임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부족간 갈등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부족간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해소 등 산적한 과제가 많은 상황임.

□ 주변국들로부터의 테러 위협, 난민 유입 등으로 사회불안 가중

-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알-샤바브(al-Shabab)의 테러로 인해 에티오피아-소말리아 국경 지역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테러로 인한 위협요인이 지속적으로 잠재되어 있음.

- 알-샤바브는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알-카에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에티오피아는 물론 케냐,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테러를 자행하여 역내 불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알-샤바브 외에도 동북부 국경 지대의 소말릴란드(소말리아의 일부로, 1991년 5월 소말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국제적으로 불인정)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 역시 에티오피아에 테러 위협을 가하고 있음.
- 남수단 내전으로 인해 남수단의 Nuer족 주민들이 현지의 지속적인 폭력 사태와 사회 불안정을 피해 난민화되어 에티오피아로 유입됨에 따라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소말리아 난민의 유입 과정에서 테러리스트들도 유입되어 테러 공격을 당한 케냐의 경우처럼, 2016년 4월 15일 에티오피아 Gambela 지역에서 남수단 무장조직이 침입하여 140여명의 민간인을 살해하는 참사가 발생하는 등 국경 지대에서의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즘 전파 시도로 불안 가중

- 이슬람 극단주의의 근원이라 할 와하비즘을 세계 각지에 전파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단체/개인의 재정적 후원을 받는 마드라사(이슬람 신학교)와 모스크 등이 에티오피아에도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와하비즘 성향 마드라사와 모스크의 증가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전파를 부추겨, 본래 콥트파 기독교가 우세한 국가였던 에티오피아의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 2016년 10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 2014년 4월 에티오피아 정부가 오로모족 거주지인 Oromia 주의 36개 도시와 17개 농촌 지역을 수도 아디스아바바 내로 편입하는 수도 확장계획(AAIMP)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져 갈등이 시작되었음.
- AAIMP는 토지수용에 대한 초법적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오로모족의 생존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됨은 물론, 지리적 분리와 환경오염 증대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됨.

- 이에 Oromia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시위가 계속되어, 에티오피아 정부는 결국 2016년 1월 13일 AAIMP의 포기를 발표하였음. 그러나 정부에 분노한 Oromia 주민들의 반정부 시위는 계속되었고, 암하라족 주민들이 북부의 Gondar 시에서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면서 저항이 확산되었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반정부 시위에 무력진압으로 맞섰고, 급기야 2016년 10월 2일 Oromia 주의 Bishofu 시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의 유혈진압으로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시위가 확산되어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10월 10일 25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는 경찰 대신 에티오피아 정부군이 전 국토의 치안을 관장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 정부 발표에 의하면 비상사태 선포 후 현재까지 약 22,000명 이상이 반정부 시위로 체포, 구금되었음.
- 반정부 시위가 외국인 소유 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공격과 약탈로 확대되어 (특히 현지인들 간에 에티오피아 정부를 적극 지지한다고 간주되고 있는 중국의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공격이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는 물론 기존의 외국인투자 지속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7년 3월 국가비상사태 4개월 간 연장 결정

- 에티오피아 의회는 지난 3월 30일 국가비상사태를 4개월간 연장기로 결정하였음. 단, 지난 6개월 간 적용되었던 일부 조치들(영장 없는 체포 및 가택수색, 미디어 제한, 야간통행 제한 등)은 해제되었음.
 - 그러나 정부가 지정한 반정부집단과의 접촉, 시위의 조직 및 공모, 일부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접속 제한 등의 조치는 계속 유지됨.

3. 국제관계

□ 에리트레아와의 국경 분쟁은 전면적 충돌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

- 1993년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에서 분리 독립한 후 양국간 국경 분쟁이 1998년 전면전으로 발전하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동 전쟁은 2000년 12월 Algier 평화협정의 체결로 종료되었음.

- 그러나 2002년 에티오피아가 자국에 속해 있던 Badme 지역을 에리트레아 영토로 귀속시키려는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 국경위원회(EEBC)*의 결정에 불복함에 따라 국경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아프리카연합(AU)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된 위원들로 구성되며, UN 사무총장의 자문을 받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리트레아가 반군 세력들에 대한 배후지원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사회안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에리트레아를 비난하고 있음.

□ Grand Renaissance 댐 건설로 이집트와 관계 악화

- 에티오피아 서부 Benishangul-Gumuz 지역에서 2011년 4월 착공된 청나일(Blue Nile River) 유역의 Grand Renaissance 댐은 금년 7월 완공되어 발전용량 6,000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임.

- 그러나 Grand Renaissance 댐 건설로 자국의 나일 강 수량(水量)이 감소하여 자국의 농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이집트는 건설 초기부터 집요하게 반대해 왔으며, 동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국과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외교적 채널을 통해 방해공작을 펼쳐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의 관계가 악화되었음.

- 나일 강의 수자원 활용에 대한 지역협력체인 나일 강 유역 이니셔티브(NBI) 회원국*들은 나일 강 하류에 위치하면서도 나일 강의 수자원에 대해 과도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집트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에티오피아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부룬디,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9개국 (에리트레아는 옵저버로 참여)

- 이집트는 1929년 영국*과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나일 강의 연간 평균 수량(현재 약 840억 톤으로 추정)의 57%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데 이어 1959년 수단과의 조약 체결을 통해 동 비율을 66%로 높였음.

* 당시 영국은 동아프리카의 자국 식민지인 부룬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을 대표하여 체결

□ 공산정권 붕괴 후 미국, EU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에티오피아는 1991년 멩기스투 공산 정권 붕괴 후 출범한 멜레스 제나 위 정권부터 현재까지 계속 친서방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략적 요충지인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에서 미국, EU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지부티를 아우르는 아프리카 북동부를 지칭

- 미국은 에티오피아의 최대 원조공여국으로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EU도 2015년 도로망 확장 및 식량 원조에 22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에티오피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대규모 원조를 앞세워 에티오피아의 기간망 건설을 거의 독점

- 중국은 최근 에티오피아에 대규모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로, 아디스아바바로부터 42km 떨어진 Dukem에 중국 기업들의 진출을 위한 해외 특별경제구역인 Eastern Industry Zone을 조성하여 운영 중임.

- 중국의 대 에티오피아 원조규모는 2000년 22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2012년에는 16.2억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됨.
- 중국은 2011년 아디스아바바에 소재한 공사비 2억 달러 규모의 아프리카연합(AU) 본부 건물을 건설, 기증한 바 있음. 이는 아프리카연합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 아프리카 투자의 쇼케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대규모 원조 및 자금 제공을 앞세워 에티오피아의 철도망, 통신망, 전력망 등 기간망 분야의 건설 프로젝트를 거의 독점하고 있음. 도로의 경우 2005년 이후 에티오피아 도로 건설의 약 70%를 중국 건설기업들이 수주해 오고 있음.

- 중국철도그룹(China Railway Group)은 아디스아바바와 아프리카 동부 아덴 만 연안의 지부티 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752km의 전철 철도(계약 규모 11억 달러)를 부설하여 2016년 10월 개통하였음. 동 철도의 기관차 및 열차도 중국 CNR 열차공사에서 공급하였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2020년까지 총연장 2,750km의 철도 건설을 추진 중이며, 동 사업의 상당 부분을 중국 기업들이 진행 중임. 아울러 아디스 아바바 경전철 공사(계약규모 4.8억 달러)도 중국 기업들이 진행 중임.
 - 중국의 ZTE와 Huawei는 2006년 에티오피아의 휴대전화 통신망 확장 및 3G 기술 확장(계약규모 약 24억 달러)을 합작으로 담당한 데 이어 현재 에티오피아 내 4G 네트워크 공사도 진행 중임.
 - 중국 기업들은 에티오피아 북부의 Tekeze River 댐(계약규모 약 3.7억 달러) 건설, 수력발전소들과 아디스아바바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망 건설 및 Grand Renaissance 댐과 송배전망 건설도 수주하였음. 동 프로젝트들에는 중국수출입은행, 중국공상은행 등이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다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 사회에서도 중국의 경제적 지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2016년 10월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서 “중국인을 없애라”는 구호가 등장하고 실제로 중국인들이 공격을 당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대 중국 감정은 좋지 않은 편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수 차례의 외채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 보유

- 에티오피아는 2001년 고채무저소득국(HIPC) 이니셔티브를 통해 4.3억 달러의 공적외채를 탕감받은 바 있으며, 2004년에도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DRI) 체결을 통해 14.9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받는 등 과거 수 차례의 외채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음.
- 2016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총 29.2억 달러(단기 1.4억 달러, 중장기 27.8억 달러)로 동년 3월 대비 약 4.8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원리금 연체는 150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원리금 연체는 없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에티오피아에 대해 낮은 신용등급 부여

- OECD는 2016.6월 국별신용도 전문가 회의에서 에티오피아의 국가신용도를 최하 등급인 7등급으로 분류한 바 있음.
- Moody's(B1, 2016.12월), Fitch(B, 2016.10월)도 에티오피아를 모두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 표 3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7 (2016. 6)	7 (2015. 6)
Moody's	B1 (2016.12)	B1 (2014. 5)
Fitch	B (2016.10)	B (2016. 4)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3. 12. 23 (북한과는 1975. 6. 5 수교)
- 주요 협정 : 경제기술협력협정(1992), 문화협정(1998), 무역협정(2003), :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11), 무상원조기본협정(2011)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6년 말 기준 15건, 2,296만 달러(누계기준)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
 - 2016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1.5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전기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호식품(커피) 등임.

< 표 4 >

한·에티오피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154,710	113,395	96,901	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전기기기 등
수 입	55,220	55,434	53,497	기호식품, 곡실류, 축산부산물 등
교역규모	209,930	168,829	150,398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에티오피아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증대 정책으로 최근 수년 간 평균 10% 안팎의 고성장을 달성하였으나,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2016년 경제성장률은 8.0%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도 7%대 중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인프라 개발 투자 등 공공 부문의 과도한 지출로 재정수지는 GDP의 -2%대의 만성적인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또한 소비재와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쌍둥이 적자의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으로 총외채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D.S.R이 급등하여 단기외채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20년 이상 집권하고 있는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2015년 5월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장기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였으나, 80여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의 특성상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둘러싼 부족간 갈등은 사회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음.
- 2016년 10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한 경찰의 유혈진압으로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지속하고 있음.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6664)

E-mail : oki1122@koreaexim.go.kr